

## ‘아버지의 집’(요 14:2-3)의 3가지 해석 가능성에 관한 연구

권해생\*

요한복음은 다양한 제의적 모티브(성전, 어린양, 제사장, 유대 절기)를 통해 예수의 정체성과 그의 공동체를 설명한다.<sup>1)</sup> 이 중에 ‘성전’ 모티브는 가장 뚜렷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예수와 예수 공동체를 설명해 주며, 내러티브 발전에 기여한다.<sup>2)</sup> 예수는 성막으로 그 백성 가운데 성육신하셨을 뿐 아니라(요 1:14),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아버지의 집(ὁ οἶκος τοῦ πατρὸς)’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요 2:19-21).<sup>3)</sup>

---

\*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번역,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H. S. Kwon, "Jesus as High Priest in John 17: A Critical Reassessment of an Old Interpretation,"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ristol/Trinity College, 2012), 90-101.
- 2) 한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와 교회의 관계는 단지 성전 모티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목자와 양의 비유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등은 요한의 기독교론과 교회론을 나타내는 또 다른 접근일 수 있다. 김동수, "요한 교회론과 교회 갱신," 「성경과 신학」 34 (2003), 129-159.
- 3) 다수의 요한복음 학자들은 예수의 성육신에 나타난 σκηνώω와 출애굽기 25:8-9에 나오는 ‘성막(σκηνή)’을 연결시킬 뿐 아니라, 예수의 성육신에 나타난 영광은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divine glory)을 떠올리게 한다(예, 출 40:34; 겔 43:9; 속 2:14)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외에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D. A. Lee, *Flesh and Glory: Symbol, Gender, and Theology in the Gospel of John* (New York: Crossroad, 2002), 35; R. J. McKelvey, *The New Temple: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75-76; B. Thettayil, *In Spirit and Truth: An Exegetical Study of John 4:19-26 and a The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Replacement Theme in the Fourth Gospel*

또한 예수는 사마리아 여자와 성전과 예배에 대해 논하시며(4:23-25), ‘영과 진리안(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의 예배를 말하면서, 예수와 예수의 공동체가 새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sup>4)</sup>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유대 성전 절기들(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은 예수와 성전이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sup>5)</sup>

한편, 예수는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sup>6)</sup> 자신의 떠남을 알리시는 고별 강화(요 13:31-16:33)에서 ‘아버지의 집(14:2-3, 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을 언급하신다. 그의 떠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시며, 위로하신다.

ἐν τῇ οἰκίᾳ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μοναὶ πολλαὶ εἰσιν· ... καὶ ἐὰν πορευθῶ καὶ ἐτοιμάσω τόπον ὑμῖν, πάλιν ἔρχομαι καὶ παραλήψομαι ὑμᾶς πρὸς ἑμαυτόν, ἵνα ὅπου εἰμὶ ἐγὼ καὶ ὑμεῖς ᾗτε.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 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본 연구는 예수의 고별 강화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의 ‘아버지 집’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묘사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

---

(Leuven: Peeters Publishers, 2007), 371-372; C. R. Koester, *The Dwelling of God: The Tabernacle in the Old Testament, Intertestamental Jewish Literature and the Old Testament* (Washington: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89), 102-104; Paul M. Hoskins, *Jesus as the Fulfillment of the Temple in the Gospel of John* (Bucks: Paternoster, 2006), 116-118.

4) Kwon, "Jesus as High Priest in John 17," 87-89.

5) Ibid., 109-127.

6) 예수의 세족은 십자가를 통한 정결을 암시하는 기독교적/구원론적 의미 외에, 제자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과 가족으로 세우는 교회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보라. 권해생, "예수의 세족(요 13:1-17)에 나타난 성전과 가족으로서의 예수 공동체 모습," 『교회와 문화』 32 (2014), 44-68.

해 먼저, 최근까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으며, 그 주요 논쟁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하여 각 논쟁의 이슈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해석은 어떤 해석인지,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 1. 2가지 상반된 견해

### 1.1. 하늘 성전

전통적으로 '아버지 집'(요 14:2-3)은 미래적 성전 개념으로,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카슨(D. A. Carson)은 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를 '하늘로, μοναί를 신자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거주 장소'로 본다. 왜냐하면 14:23에 나오는 μονή가 아버지와 아들의 거주할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sup>7)</sup> 필로가 하늘을 '아버지의 집(paternal house)'로 불렀다는 것을 언급하며(De Somniis 1.44), 브라운(R. E. Brown)은 예수 가 그의 재림(parousia)때 그의 제자들을 그의 천상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sup>8)</sup> 또한 브라이언(S. M. Bryan)은 많은 유대 자료들이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종말론적 성전을 언급하며, 특히 이사야 2:2; 출애굽기 15:17; 마카베 하 1-2는 흩어졌던 백성들이 종말에 거룩한 산에 모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한다.<sup>9)</sup> 에녹 1서는 아버지의 하늘 거소로서의 하늘 성전을 선택받은 자들의 거주 장소로 묘사한다(에녹1서 14; 39:4). 브라이언에 따르면,

7) D. 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1), 489. 카슨은 건드리의 14:23의 관점으로 14:2-3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8)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ew York: Doubleday, 1966), 625.

9) S. M. Bryan, "The Eschatological Temple in John 14,"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5, no. 2 (2005), 188-190.

τόπος라는 용어는 독자들이 하여금 하늘 성전으로서의 ‘아버지 집(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을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τόπος는 요한복음 11:48 뿐 아니라, 다른 유대 전통에서도 하늘 성전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예, 70인경 단 8:11; 9:27).<sup>10)</sup>

한편, 맥카프리(J. McCaffrey)는 하늘 성전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아버지 집’이 가지는 관계적 개념도 배제하지 않는다. 맥카프리에 따르면 οἰκία나 τόπος는 각각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1)</sup> οἶκος는 ‘외적인 집’이나 ‘건물’(요 2:16; 11:20; 17:7, 53)을 가리키는 반면에, οἰκία는 (물론 11:31; 12:3에서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요한복음에서 ‘가족(household)’을 의미한다. 특히 ‘아들이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8:35는 14:2-3의 해석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οἰκία는 ‘하늘 성전’과 ‘신적인 가족’ 둘 다를 의미한다. 또한 τόπος는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요 4:20; 11:48)뿐 아니라,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예수의 몸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2:13-22에서 예수의 몸은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영화롭게 된 새로운 성전으로 묘사된다. 14:2-3에서 예수의 몸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서, 새로운 성전이 된다. 이것은 2:13-22에 나오는 성전 묘사와 상응한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 후에 예수가 준비하는 장소는 그의 몸으로서의 성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모든 신자들이 새 성전인 그와 연합하여 하늘 성전에 참여할 것임을 확실히 밝힌다. 따라서 맥카프리는 하늘 성전으로서 ‘아버지의 집’은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영적, 공간적 영역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자들은 예수라는 성전을 통해 아버지와 영적으로 함께 거하게 된다고 한다.

10) Ibid., 194.

11) J. McCaffrey, *The House with Many Rooms: The Temple Theme of Jn. 14,2-3* (Roma: EPIB, 1988), 177-191.

## 1.2. 성전 공동체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하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로 보는 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sup>12)</sup> 이들은 하늘 성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요한복음 14:2-3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장소를 예수 공동체로 본다. 건드리(R. H. Gundry)는 특히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주목한다. *μοναί*와 *οικία*. 14:23에는 *μοναί*의 단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예수가 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건드리는 "14장에서 *μονή*가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즉, 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거소를 가지는 것처럼, 예수와 아버지도 각각의 신자 안에 거소를 가진다"라고 한다.<sup>13)</sup> 또한 4:53; 8:35에서 '건물'보다는 '가족'을 언급하기 위해 *οικία*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건드리는 14:2-3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간주한다.<sup>14)</sup>

키너(C. S. Keener)는 14:2-3에 나오는 예수의 약속들은 문맥에서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5)</sup> 그 약속들이 미래적인지, 곧 실제화 될 것인지는 모호하다. 이것이 도마나 빌립 같은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말한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다(요 14:5, 8). 14:2-3 이후에, 14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의 '간다(going)'와 '온다(coming)'

12)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14:2-3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전통적 해석은 두 부류로 나뉜다. (1)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2) 종말에 신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시는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Clark-Soles, Jaime, "I WILL Raise (Whom?) Up on the Last Day": Anthropology as a Feature of Johannine Eschatology," *New Currents through John: a Global Perspective*, Francisco Lozada and Tom Thatcher, ed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 2006), 48-49.

13) R. H. Gundry,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onai'(John 14 2)," *ZNW* 58 (1967), 70.

14) *Ibid.*, 71.

15) C. S. Keener, *The Gospel of Joh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3), 932-938.

의 표현은 주로 부활 후에 곧 일어날 사건들을 가리킨다. 특히 성령을 주시게 위해 예수가 제자들에게 오는 것(14:16-18)과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들 가운데 거하는 것(14:23)을 말한다. 이 때문에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은 공동체로서의 성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

14:2-3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맥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는 학자는 콜(M. L. Coloe)이다.<sup>16)</sup> 그녀는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요 14:5-14; 14:22-24)와 보혜사의 약속(요 14:15-17; 14:25-26)이 14장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라 한다. ‘가다’(요 14:2, 19, 28)와 ‘오다’(요 14:3, 18, 28)에 대한 그의 언급은 역설적으로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보혜사의 역할은 예수의 부재(absence)와 임재(presence)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한다. 또한 콜은 콤파 문서와 바울 서신의 많은 증거들이 공동체로서의 성전 개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한다(1QS 8:4-10; 9:3-6; CD 3:18-4:10; 1Qp Hab 12:3; 고전 3:16-17; 6:19; 고후 6:16; 엡 2:21).<sup>17)</sup>

요컨대, 14:2-3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들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1) 하늘 성전 (2) 공동체 성전. 또한 몇몇 학자들은 14:2-3에 나오는 ‘거차’가 예수 자신이라고 한다. 다음 섹션에서 요한복음 14:2-3이 원래 의미하였던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논점들이 각각 다루어질 것이다.

16) M. L. Coloe, *God Dwells with U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1), 157-167.

17) 또한 οἰκία의 가족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맥카프리와 콜처럼, 한(S. W. Hahn)은 ‘아버지의 집’(14:2)을 요한의 공동체로 해석한다. “All this suggests that Jesus’ promise to prepare a Temple in which the disciples shall abide will be realized now, in this age, through the mutual indwelling of the disciples, the Father, Son, and Spirit.” 또한 콜의 주장을 더 깊이 토론하면서, 카터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the language of ‘Father’s House,’ ‘many rooms/dwellings,’ ‘prepare,’ and ‘place’ in 14:2-3 emphasizes the distinct identity of the community of Jesus-believers as a temple-community.” S. W. Hahn, “Temple, Sign, and Sacrament: Towards a New Perspective on the Gospel of John,” S. W. Hahn and D. Scott, eds., *Letter & Spirit, Volume 4: Temple and Contemplation: God’s Presence in the Cosmos, Church, and Human Heart* (October 27, 2008), 127-128; W. Carter, *John and Empire: Initial Explorations* (London: T&T Clark, 2008), 257-260.

## 2. 정확한 해석을 위한 3가지 쟁점 분석

앞서 소개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3가지 쟁점의 토론을 통해, 본문의 정확한 뜻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용어, 유대 배경, 문맥. 각각의 쟁점은 어떤 견해를 지지하는지 밝히며,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 2.1. 용어의 의미

먼저, 3개의 헬라이어 단어를 살펴보자(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 μοναί; τόπος). 이 3단어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οἰκία는 οἶκος와 정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가?

ἐν τῇ οἰκίᾳ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μοναὶ πολλαὶ εἰσιν· … καὶ ἐὰν πορευθῶ καὶ ἐτοιμάσω τόπον ὑμῖν, πάλιν ἔρχομαι καὶ παραλήψομαι ὑμᾶς πρὸς ἐμαυτόν, ἵνα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καὶ ὑμεῖς ᾗτε(요 14:2-3)

전체 신약 성경은 두 단어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sup>18)</sup> οἰκία는 건물뿐 아니라(마 5:15; 7:24 이하; 10:12), 가족이나 공동체를 의미한다(마 10:12; 12:25; 막 6:4). οἶκος도 건물(눅 11:51; 행 7:2 이하)과 공동체(히 3:2, 6; 10:21), 가족(눅 1:33, 69; 2:4)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각각의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οἰκία는 '건물'로서의 집(요 11:31; 12:3)이나 '가족'으로서의 집(요 4:53; 8:35)을 의미하고, 반면에 οἶκος는 오직 '건물'(요 2:16, 17; 11:20)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14:2에 있는 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는 '하늘 성전'이나 '신적인

18) Michel, "οἶκος/ οἰκία" *TDNT*, V, 119-134; J. Goetzmann, "HOUSE," *NIDNTT*, 2, 247-251.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성전’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만약 복음서 기자가 οἶκος와 οἰκία를 구분 없이 썼다면, 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가 성전으로서의 예수 자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성전 청결 사건에서 ‘아버지의 집’의 개념을 예루살렘 성전(요 2:16)에서 그 자신(요 2:19)에게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μοιή라는 용어는 오직 두 번 나타난다. 둘 다 요한복음에 등장한다(요 14:2, 23). 요한복음 14:23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거주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각 신자 안에 시작된다. 신약 용례 외에, 70인경에서는 하나의 용례가 더 있고(마카베 상 7:38), 요세푸스는 두 번 사용한다(고대사 13.2.1; 8.13.7). 요세푸스 고대사 8.13.7에서의 사용은 모호하지만, 요세푸스 고대사 13.2.1은 분명히 μοιή를 ‘영원한 거주’의 뜻으로 사용한다.<sup>19)</sup> 이러한 유대 전통은 μοιή를 직접적으로 성전과 연결시키지는 않을지라도, 솔로몬 성전과 종말론적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을 묘사한다(대상 28:11-12; 겔 40:17). 그럼에도 위에 인용된 용례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어 거처로서의 성전 특징 외에, 14:2-3에 나오는 성전의 다른 특징들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 더욱이 μοιή의 동사 형태인 μένω는 신약의 112회 용례 중, 요한 문헌에서 66회 사용되었다(요한복음에서 40회).<sup>20)</sup> 이 단어는 대부분 공간적인 거주의 의미를 띄고 있지만(요 2:12; 4:40), 자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요 1:32; 14:10), 혹은 아버지와 아들과 신자들의 연합(요 6:56; 15:4-7)을 가리킨다.<sup>21)</sup> 그러므로 μοιή에 대한 용어 분석은 요한복음

19) A. R. Kerr, *The Temple of Jesus' Body: The Temple Theme in the Gospel of John*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2), 299.

20) Hauck, “μένω,” *TDNT*, IV, 575; C. Brown, “Remain,” *NIDNTT*, 3, 224-226.

21) 카슨과 바레트는 요한복음 1:38-39의 μένω 용례와 요한복음 15장의 μένω 용례의 관련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들은 1:38-39에 나오는 μένω는 상징적으로 15장의 μένω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내러티브의 발전을 통해, ‘어디 계시오니까?’(1:38)라는 질문은 15장에서 그 대답이 신학적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즉, 15장의 아버지와 공동체 안에 머무시는 예수의 진정한 거처에 대답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155; C. K. Barrett, *The Gospel*

14:2-3에 나오는 성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셋째로 14:2-3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τόπος*이다. 이 단어는 70인경에서 종종 제의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창 12:6; 21:31; 28:11-19), 특히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었다(신 12:5, 11; 16:16; 17:8, 10; 18:6; 31:11). 상징적으로 *τόπος*는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두시고, 거하시며 성전을 가리킨다. 신약에서도 성전을 자주 의미한다(요 4:20; 11:48; 행 6:13이하; 21:28). 한편 *τόπος*는 자주 *ἑτοιμάζω*와 함께 사용되며, 두 단어는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sup>22)</sup> 성전 건축과 관련된 '예비된 거처'라는 말은 다양한 유대 문헌에 등장한다(왕상 5:18; 6:9; 대상 22:2, 5, 14; 28:2; 29:2, 3, 16; 대하 2:9; 8:16; 31:11; 지혜서 9:8). 더욱이 다윗-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묘사하는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 다윗 왕국과 그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ἑτοιμάζω*를 두 번이나 사용한다(삼하 7:12, 24). 비록 이런 용례들이 '예비된 처소가 성전 건축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τόπος*가 어떤 종류의 성전(예루살렘 성전? 예수 성전? 하늘 성전?, 공동체 성전?)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문맥에서 보았을 때, '예비된 처소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겠다.<sup>23)</sup>

요컨대 용어 분석은 14:2-3의 해석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용어 분석은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각각의 헬라어 단어(*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 μνηαί; τόπος*)는 하늘 성전, 공동체 성전, 예수 성전을 가리킬 수 있다.

*According to St. John* (London: SPCK, 1978), 181.

22) Coloe, *God Dwells with Us*, 164.

23) 다만, 맥카프리가 지적했듯이, 2:13-22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볼 때, 예수 성전의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2.2. 유대 배경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늘 성전이나 공동체 성전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제2성전기에 자주 등장한다.<sup>24)</sup> 동물의 묵시(*Animal Apocalypse*)는 옛 성전이 질적으로 변형된, 하늘 성전을 제시한다: “그때 고대의 집이 변형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나는 양들의 주님이 이전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높은 새로운 집을 세우실 때까지 계속해서 갔다. 그 새로운 집은 예전 집이 있었던 자리, 바로 그곳을 뒤덮으며 건설되었다”(에녹1서 90:28-29). 거룩한 자들을 위한 하늘 처소에 대한 이런 환상은 에녹의 묵시 이곳저곳에서 자주 나타난다(에녹1서 39:4; 53:6; 71:16).

에녹과 달리, 쿠파란 문서에서 성전은 자주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였다.<sup>25)</sup> 쿠파란 문서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옛 성전을

24) 가스틴(Lloyd Gaston)은 그의 책, *No Stone on Another* (1970)에서 성전 파괴와 재건축의 중요성을 부정하는데, 샌더스(E. P. Sanders)는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2성전기의 종말론적 새 성전에 대한 기대들을 조사한다. 그의 주장을 위해, 샌더스는 제2성전기 이전부터(Isa. 49:5f; 56:1-8; 66:18-24; Mi. 4) 다양한 제2성전기 문헌들(Tob. 13:1-18; 1 En. 24-25; 89-90; Jub. 1:15-26; T. Benj. 9:2; Ps. Sol. 17:23-34; 1QM 7:4-10; 1QS 9:4-5; 4QpPs37 3:11; 11QTemple 29:8-10)을 제시한다. 그러나 종말론적 성전이 하늘 성전인지, 공동체 성전인지 샌더스는 결론짓지 않고, 두 개념을 함께 사용한다. E. P. Sanders, *Jesus and Judaism* (London: SCM Press, 1985), 77-90.

25) Bertil Gärtner, *The Temple and the Community in Qumran and the New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16-41; Lawrence H. Schiffman, “Community Without Temple: The Qumran Community’s Withdrawal from the Jerusalem Temple,” *Gemeinde Ohne Tempel/Community Without Temple*, Beate Ego, et al., eds. (Tübingen: Mohr Siebeck, 1999), 272-274; R. Schnackenburg,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 (Kent: Burns & Oates, 1982), 351. 개르트너는 1QS와 4Q174뿐 아니라, 4QpIsad frag. 1와 1QpHab 7:1 이하 등을 분석하면서, 쿠파란 공동체가 자신들을 대체 성전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쉬프만은 공동체 출입을 위한 엄격한 규율(Community Rule을 포함하여)은 자신의 공동체를 새 성전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효과적으로 대체한다고 보았다.<sup>26)</sup> 1QS 5:5 이하는 쿵란 공동체를 '아론 안에 있는 거룩(holiness in Aaron)'과 연결시켰고, 1QS 8:5 이하는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집(a house of holiness for Israel)'이요, '아론을 위한 최고의 모임(an assembly of supreme holiness for Aaron)'으로 보았다. 또한 사무엘하 7:10-14을 주해하는 4QFlorilegium(4Q174)는 '사람들로 구성된 성소(a sanctuary of men)'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체를 성전으로 분명히 묘사한다.<sup>27)</sup> 다시 말하면, 쿵란 공동체는 다윗 언약의 '집(house)'에 대한 약속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은 곧 신적 공동체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계율서(Manual of Discipline)도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한다: "그때에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아론과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집으로 구별할 것이다. 이 집은 이스라엘을 위한 공동체의 집이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다."(1QS 9:5-6)<sup>28)</sup> 그러므로 유대 배경도 하늘 성전과 공동체 성전 각각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14:2-3에 나오는 성전 개념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sup>29)</sup>

26) 브루크와 스위엣은 쿵란 공동체를 하늘 성전을 예표하는 임시 성전(interim temple)이라 한다. G. J. Brooke, "Miqdash Adam, Eden and the Qumran Community," *Gemeinde Ohne Tempel. Zur Substituierung Und Transformation Des Jerusalemer Tempels Und Seines Kultes Im Alten Testament, Antiken Judentum Und Frühen Christentum*, Beate Ego, Armin Lange, and Peter Pilhofer, eds. (Tübingen: MohrSiebeck, 1999), 285-291; Paul Swarup, *The Self-understanding of the Dead Sea Scrolls Community: An Eternal Planting, a House of Holiness*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6), 119-126.

27) '사람들의 성소(a sanctuary of men)'에 대한 다양한 논쟁은 필자의 다른 논문을 참조하라. 권해생, '요 20:19-23에 나타난 예수의 성전 건축과 메시아 직분,' 『신약 연구』 12:2 (2013), 226-227.

28) C. H. T. Fletcher-Louis, *All the Glory of Adam: Liturgical Anthropology in the Dead Sea Scrolls* (Leiden: Brill, 2002), 167; Joseph A. Fitzmyer, *Essays on the Semitic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7), 214; B. Nitzan, "The Idea of Holiness in Qumran Poetry and Liturgy," *Sapiential, Liturgical and Poetical Texts from Qumran*, D. K. Falk, F. G. Martinez, and E. M. Schuller, eds. (Leiden: Brill, 2000), 130.

### 2.3. 문맥

#### 2.3.1. 고별 강화의 전체 구조와 14:2-3

마지막으로 문맥은 어떤 해석을 더 지지하는가? 14:2-3이 14장 전체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14:3에 나오는 예수의 여정은 14장의 나머지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4:2-3에 나오는 예수의 수사법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예수의 떠남과 다시 옴의 언어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왜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의 말의 실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유이다(요 14:5-7; 16:17-19). 이 때문에, 예수는 고별 강화의 나머지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그의 뜻을 밝힌다(요 13:31-16:33).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먼저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을 구사하고, 이에 제자들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뜻을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sup>30)</sup>

29) 한편, 쿨란 문서가 요한복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예, J. H. Charlesworth, "A Critical Comparison of the Dualism in 1QS 3: 13-4: 26 and the 'Dualism' Contained in the Gospel of John," *John and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Christian Origins Library, 1990), 101-102; J. H. Charlesworth, ed., *John and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Crossroad, 1990).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쿨란의 공동체 성전 개념이 더 강하게 요한복음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쿨란이 요한복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지 않는다. 참고 김동수, "쿨란과 요한의 관계: 사회학적 분석," 「신약논단」 9:1 (2002), 233-250. 그럼에도 쿨란 문서는 1세기 유대 전통들이 성전과 공동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본다.

30) 고별 강화의 구조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카슨과 비슬라-머레이: 13:31-14:41; 15:1-16:33; 뢰스텐버거: 13:31-14:31; 15:1-17; 15:18-16:33; 키너: 14:1-31; 15:1-16:4; 16:5-16:33). 그러나 예수와 제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수사적 분석이 14:2-3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수의 까다로운 수사법(13:31-35)

당황한 제자들 1(13:36-38)

예수의 설명 1(14:1-4)

당황한 제자들 2(14:5)

예수의 설명 2(14:6-7)

당황한 제자들 3(14:8)

예수의 설명 3(14:9-21)

당황한 제자들 4(14:22)

예수의 설명 4(14:23-16:16)

당황한 제자들 5(16:17-18)

예수의 설명 5(16:19-28)

깨달은 제자들(16:29-30)

예수의 마지막 반응(16:31-33)

이 분석에 따르면, 고별 강화(13:31-16:33)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의 그의 부재(absence)에 대한 최초 진술(요 13:31-35)에 몹시 당황한 제자들은 그에게 그의 진술의 의도를 묻거나, 그들 스스로 그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의 첫 번째 설명에 나오는 14:2-3의 예수 메시지가 고별 강화(14-16장)의 나머지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고별 강화의 문맥이 14:2-3의 이해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의 두 번째 설명에서, 예수는 아버지께 가는 통로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계시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거주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14:6-7). 또한 그의 세 번째 설명에서 예수 자신과 그의 공동체가 아버지의 거주하시는 장소로 묘사된다(14:9-21).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속한 것을 보여주신다. 예수는 아버지의 현존(presence)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현현(theophany)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거처로 묘사된다(요 14:16-20). 넷째, 예수는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의 거주를 위한 영원한 거처라고 말한다(14:23-16:16). 신자의 공동체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거주하시는 새 성전이다. 성령을 통한 예수의 다시 오심은 공동체에게 기쁨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가 성령을 통해 그의 공동체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다(요 16:19-28). 성령을 통한 예수의 다시 오심은 공동체에게 기쁨을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는 고별 강화의 기본 구조가 보혜사 성령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31)</sup> 다시 말하면, 아들과 신자들의 공동체는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제시된다.<sup>32)</sup>

### 2.3.2. 예수의 여정과 14:2-3

여기서 문맥을 배경으로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예수의 여정에 대한 언급이다. 요한복음 13:31-36에서 예수는 먼저 그의 부채를 언급하고, 이에 베드로를 포함한 그의 제자들은 몹시 당황한다. 그의 부채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14:2-3에서 예수는 그의 부채와 임재를 둘 다 언급하고, 나머지 고별 강화에서, 의도적으로 그 둘을 다시 언급한다. 그러면 ‘예수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의 ‘오심(ἔρχομαι)’은 고별 강화에서 4번 언급된다(요 14:3, 18, 23, 28). ἔρχομαι가 ‘재림 시에 오심’을 나타내는지, ‘임박한 오심’을 나타내

31) 한편, 예수의 넓은 의미에서 예수의 고별 강화에 포함되는 그의 세족식(요 13:1-17)이나 고별 기도(요 17:1-26)도 다분히 임박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예수는 그의 공동체가 서로 섬기며 하나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발을 씻기며, 기도하신다. 참고, 김문현, “요한복음 17장 어떻게 읽을 것인가?-교회를 향한 예수의 비전-,” 『신약연구』 10:4 (2011), 825-858.

32) 필자의 주장이 고별 강화를 단순화시켜, 하나의 개념으로 전체를 일원화시키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고별 강화의 모든 부분이 ‘거주(dwelling)’의 모티브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제자들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고별 강화의 주요 개념이라는 사실은 좀처럼 부인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는 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재림 때에 오심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14:3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sup>33)</sup> 그들은 14:3이 종말에 일어나는 예수의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키기 때문에, 14:18이 예수의 두 번째 오심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예수의 임박한 오심을 주장하는 최근의 학자들에 의해 거의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sup>34)</sup> 그 대신, 다수의 최근 학자들은 14:18이 두 종류의 임박한 오심 중 하나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부활 때 오심'과 '성령으로 오심.'<sup>35)</sup>

-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비슬리 머리와 카슨은 14:18에 나오는 예수의 오심은 예수의 부활절 오심을 가리킨다고 강하게 주장한다.<sup>36)</sup> 이들은 14:18이 14:19-20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절에서 예수는 그의 일시적인 부재와 임박한 재출현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그는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부활 후 그의

33) H. N. Ridderbo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7), 505.

34) 브라운은 19절에 예수가 세상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재림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645.

35) 최흥진은 바레트의 견해를 따라, 여기에서 '예수의 오심'은 그의 부활과 성령으로 오심, 재림으로 오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다중적 의미라 한다. C. K. Barrett, *John*, 457; 최흥진, 『요한복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6), 217-218.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이 재림보다는 임박한 오심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이어지는 논거를 참조하라.

36) G. R. Beasley-Murray, *John*, WB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7), 258-259;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501-502.

제자들에게 곧 보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살고, 그들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나’). 비슬리 머리와 카슨은 14:19-20에는 예수의 성령으로 오심을 암시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카슨은 보혜사에 대한 본문(요 14:16-17, 25-26)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현재의 본문(14:18-20)에 의해 개념적으로 더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본문은 두 개의 보혜사 성령 본문을 지지하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비슬리 머리와 카슨은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맥의 흐름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문의 전후에(요 14:16-17, 25-26)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이 강조된다. 또한 현재 본문 자체가 예수의 지속적인 임재 가능성을 보여준다.<sup>37)</sup>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14:18);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14:19); 아버지와 아들과 공동체의 상호 거주(14:20). 또한 14:19의 상응 본문(요 16:16)은 예수의 성령으로 임재를 강하게 암시하는데, 이 본문이 속한 문단(16:7-15)도 성령 사역을 주로 언급한다.

비슬리 머리와 카슨과는 반대로, 언(D. E. Aune)은 예수의 부활절 오심보다 성령으로 오심을 더 선호한다.<sup>38)</sup> 언은 14:18에 있는 예수의 오심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는 두 구절과 깊이 연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언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돌아오심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다’를 나타내는 두 개의 헬라이어 단어(ὁράω/θεωρέω)를 구분한다. 고별 강화에서 14:19는 예수의 떠남과 돌아옴을 더 분명하게 묘사하는 16:16과 대비를 이룬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θεωρεῖτε)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ὄψεσθε).’ 언은 14:10을 근거로, θεωρέω를 육체적 봄으로 해석하지만,

37)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646.

38) D. E. Aune, *The Cultic Setting of Realized Eschatology in Early Christianity* (Leiden: Brill, 1972), 126-133.

ὄρω는 1:51에 근거해서 제의적 상황에서 승귀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다. 첫째, 14:19b에 예수의 부활을 암시하는 용어들이 있다('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리고 둘째로, 헬라이어 단어의 경우, 14:19a는 θεωρέω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θεωρέω)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θεωρέω).' 따라서 언의 주장도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면 14:18에 나오는 '예수의 오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필자는 요한복음 14:18-20에 대한 위의 두 관점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본문에는 '영원(permanence)'의 이미지가 녹아 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14:18);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14:19); 아버지와 아들과 공동체의 상호 거주(14:20). 동시에 19절이 예수의 부활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예수의 부활을 상징할 수도 있다. 또한 요한의 부활 기사에서, 예수의 부활(요 20:1-10)과 성령의 오심(요 20:19-20)은 예수의 승천 이전 사건으로서, 하나의 연결된 활동으로 소개된다. 예수는 부활을 통해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돌아온 예수는 성령으로 공동체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14:18에 있는 예수의 오심은 부활로 오시는 예수를 의미하지만, 이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가 거주한다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14:3에 나오는 '예수의 오심'은 그가 부활과 성령으로 공동체 가운데 온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4:3외에, 요한복음 14장에 쓰인, 예수의 오심과 관련된 ἔρχομαι의 모든 용례들(요 14:18, 23, 28)은 예수의 재림보다는 부활 때나 성령으로 오심을 가리킨다. 14:18은 예수가 부활과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나타내며, 14:23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신자에게 와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14:28은 앞서 나온 예수의 떠남과 오심을 반복

하고 있으며, 보혜사 성령의 오심(14:26)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14:27)과 깊이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14:3의 ‘예수 오심’은 재림보다는 임박한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3.3. 요한복음 전체 문맥과 14:2-3

위에서 살펴 본대로, 14:2-3에 나오는 ‘예수의 오심’이 부활과 성령으로 공동체 가운데 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경우 ‘거처(τόπος)’는 예수 자신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거처를 마련한 후 다시 오시는 예수의 모습은, 부활을 통해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세운 후,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과 유비된다. 앞서 밝혔듯이,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의 파괴와 재건축으로 묘사한다(요 2:19-21).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이는 동시에 성전의 파괴와 재건축을 의미한다고 하신다. 맥카프리에 따르면, 두 내러티브(요 2:13-22; 14:2-3)는 단어적, 배경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sup>39)</sup> τὸν οἶκον τοῦ πατρὸς μου(요 2:16)와 ἐν τῇ οἰκίᾳ τοῦ πατρὸς μου(요 14:2)는 단어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며 연결되고 있다. 또한 두 장면은 연대기적으로 곧 다가오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요 2:13; 13:1). 또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여정이 똑같이 등장한다(요 2:13; 11:55-56; 12:20).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장면과 최후의 만찬 장면은 둘 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한 여정 다음에 이어지고, 곧 다가오는 유월절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므로 맥카프리는 요한복음 저자는 두 장면을 유사한 연대기적, 지형적 상황 안에 두고, 둘 사이에 중요한 단어적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요한이 의도적으로 두 내러티브의 신학적 연관성을 강조한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14:2-3이 예수의 죽음과

39) McCaffrey, *The House with Many Rooms*, 186.

부활을 통해 예수의 몸이 새로운 성전, 즉 '거처'로 세워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맥카프리의 두 본문의 유사성에 대한 분석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의 여정'(요 14:2-3)에 대한 그의 해석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맥카프리는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영광스러운 몸을 '거처'로 만든다고 주장하면서도, 예수의 떠남(*πορεύομαι*)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을 떠나는 예수의 모습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맥카프리에겐 성전 된 예수는, 예수의 승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수의 성전 됨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승천하기 전에 나타난다.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기사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sup>40)</sup>

- A. 부활한 예수와 텅빈 무덤(20:1-10)
- B. 믿음이 적은 마리아에게 *부활한 예수의 나타남 I*(20:11-18)
- C.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의 나타남 II*(20:19-23)
- B' . 믿음이 적은 도마에게 *부활한 예수의 나타남 III*(20:24-29)
- A' . 부활한 예수와 메시아 직분(20:30-31)

슈나이더스(Schneiders)에 따르면, 이 부활 기사의 핵심인 요한복음 20:19-23은 성전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리라는 에스겔 약속(겔 37:26-28)의 성취를 나타낸다.<sup>41)</sup> 즉, 제자들 가운데 서서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평화의 언약 속에서 성소가 백성들 가운데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약속을 반영한다.<sup>42)</sup> 예수의 부활과 성전 건축

40) 더 자세한 분석과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권해생, '요 20:19-23에 나타난 예수의 성전 건축과 메시아 직분,' 221-226.

41) S. M. Schneiders, "The Raising of the New Temple: John 20.19-23 and Johannine Ecclesiology," *New Testament Studies* 52, no .03 (2006), 344. 한편 키너는 에스겔 37:26-28에 나오는 종말론적 약속이 예수의 고별 강화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신자들 속에 임재하는 이미지(요 14:3, 16-17, 18, 23, 26)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Keener,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936, 976.

은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에 자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14:2-3에 나오는 ‘거처를 예비하다’는 것은 예수 몸의 부활로 봐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예비하다(ετοιμάζω)’는 ‘거처(τόπος)’와 함께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예수는 부활하여, 즉 거처를 예비한 후, 다시 제자들에게 올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주신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게 되고, 이것이 곧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밝혔듯이, ‘아버지의 집(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은 3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하늘 성전, 예수 성전, 공동체 성전. 그러나 ‘오심(ἐρχομαι)’이 부활과 성령으로 오심을 뜻하며, ‘거처(τόπος)’가 예수 성전을 뜻한다면, ‘아버지의 집(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은 예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 성전이 될 수도 있다. 첫째, 예수는 ‘아버지 집(ὁ οἶκος τοῦ πατρὸς)’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 ‘아버지 집(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이 된다. 예수는 ‘아버지 집’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의 현현이 되신다. 이 예수 성전은 신자의 ‘거처(τόπος)’가 되고, 그 안에는 ‘거할 곳(μοναί)’이 많다. 이 예수를 통해 신자들은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신자들이 예수 성전과 성령을 통해, 공동체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버지 집(ἡ οἰκία τοῦ πατρὸς)’은 아버지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말하며, ‘거할 곳(μοναί)’은 그 신적 가족 안에 신자들이

42) 예수가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 장면(요 20:22)은 창세기 2:7과 에스겔 37:9의 재창조 장면과 상응한다는 사실은 이 단락이 에스겔과 깊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화시켜준다. M. Turner, *The Holy Spirit and Spiritual Gifts: Then and Now* (London: Paternoster Press, 1996), 90; Stephen T. Um, *The Theme of Temple Christology in John's Gospel* (London: T&T Clark, 2006), 181; C. Bennema, “The Giving of the Spirit in John 19-20: Another Round,” *The Spirit and Christ in the New Testament and Christian Theology: Essays in Honor of Max Turner*, I. H. Marshall, V. Rabens, and C. Bennema, eds. (Grand Rapids: Eerdmans, 2012), 95.

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거처(τόπος)'는 신자들이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해, 연합해야 할 참 성전으로서의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가리키며, 예수의 '떠남과 오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오심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은 모두 예수 성전되심과 공동체의 성전됨을 강하게 암시한다. 다만, οἰκία가 요한복음에서 가족적 의미를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면, 요한복음 14:2-3을 다음과 같이 쉽게 풀어쓸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가족)안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부활의 몸)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부활의 몸)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성령 공동체)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sup>43)</sup>

### 3. 결론

지금까지 3가지 핵심 논점을 살펴보았다. 용어 분석, 유대 배경, 그리고 문맥. 첫 번째 두 논점은 3가지 해석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논점에 의하면, 요한복음 14:2-3은 하늘

43)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공동체의 특성 중의 하나로 '서로 사랑(요 13:34)을 꼽는다. 또한 요한 공동체는 자신들을 유대인과 대조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요 1:12)로 인식했다고 말한다. 예, 서중석, 『요한복음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53-170, 223-246; 현경식, "요한의 고별담론과 사랑의 수사학," 『신약논단』 20:2 (2013), 371-408.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성전 개념에 입각하여 요한복음 교회론을 재정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하라는 명령은 가족 간의 친밀한 사랑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사랑 명령을 구약의 옛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의 측면에서 접근한 우성훈의 연구를 눈여겨 볼만하다. 우성훈, "요한복음의 새 계명에 담긴 새로움의 의미," 『Canon & Culture』 4:1 (2010), 249-276. 그러나 그의 연구는 요한복음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 심층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된다는 사실을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성전을 가리킬 수도, 예수 성전이나 공동체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논점인, 문맥에서 판단해 보건대, 우리는 요한복음 14:2-3은 다분히 현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 만약 용어 분석이나 배경 연구가 정확한 해석을 위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적절한 해석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문맥은 아버지의 임재 장소로서의 예수 성전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성전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는 자신의 떠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며, 그 바탕 위에 성령으로 인한 성전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다. 신자들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한 공동체, 한 성전을 이루게 된다. 이 성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거주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는 제자들이 이 삼위 하나님의 거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격려한다. 이 메시지로 예수는 자기의 떠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어>**

아버지의 집, 성전, 예수, 부활, 공동체

**<Key words>**

the Father's House, temple, Jesus, resurrection, community

\* 접수일 2014년 1월 14일, 수정일 2014년 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4년 3월 5일

### 참고문헌

- Aune, D. E., *The Cultic Setting of Realized Eschatology in Early Christianity*, Leiden: Brill, 1972.
- Barrett, C. K.,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London: SPCK, 1978.
- Beasley-Murray, G. R., *John*, WB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7.
- Brooke, G. J., "Miqdash Adam, Eden and the Qumran Community," *Gemeinde Ohne Tempel. Zur Substituierung Und Transformation Des Jerusalemer Tempels Und Seines Kultes Im Alten Testament, Antiken Judentum Und Frühen Christentum*, Beate Ego, Armin Lange, and Peter Pilhofer, eds., Tübingen: Mohr Siebeck, 1999, 285-301.
- Brown, C., "Remain," *NIDNTT*, 3, 224-226.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ew York: Doubleday, 1966.
- Bryan, S. M., "The Eschatological Temple in John 14,"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5, no. 2 (2005), 187.
- Carson, D. 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1.
- Carter, W., *John and Empire: Initial Explorations*, London: T&T Clark, 2008.
- Clark-Soles, Jaime., "I WILL Raise (Whom?) Up on the Last Day': Anthropology as a Feature of Johannine Eschatology," *New Currents through John: A Global Perspective*, Francisco Lozada and Tom Thatcher, ed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 2006.
- Coloe, M. L., *God Dwells with U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1.
- Fitzmyer, Joseph A., *Essays on the Semitic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7.
- Fletcher-Louis, C. H. T., *All the Glory of Adam: Liturgical Anthropology in the Dead Sea Scrolls*, Leiden: Brill, 2002.
- Gärtner, Bertil, *The Temple and the Community in Qumran and the New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 Goetzmann, J., "HOUSE," *NIDNTT*, 2, 247-251.
- Gundry, R. H.,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onai'(John 14 2)," *ZNW*

58 (1967), 68-72.

Hahn, S. W., "Temple, Sign, and Sacrament: Towards a New Perspective on the Gospel of John," S. W. Hahn and D. Scott, eds., *Letter & Spirit, Volume 4: Temple and Contemplation: God's Presence in the Cosmos, Church, and Human Heart* (October 27, 2008).

Hauck., "μένω" *TDNT*, IV, 574-588.

Keener, C. S., *The Gospel of Joh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3.

Kerr, A. R., *The Temple of Jesus' Body: The Temple Theme in the Gospel of John*,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2.

Kwon, H. S., "Jesus as High Priest in John 17: A Critical Reassessment of an Old Interpretation," Ph. D. Dissertation, Bristol: The University of Bristol/Trinity College, 2012.

McCaffrey, J., *The House with Many Rooms: The Temple Theme of Jn. 14, 2-3*, Roma: EPIB, 1988.

Michel., "οἶκος/οἰκία," *TDNT*, V, 119-134.

Nitzan, B., "The Idea of Holiness in Qumran Poetry and Liturgy," *Sapiential, Liturgical and Poetical Texts from Qumran*, D. K. Falk, F. G. Martinez, and E. M. Schuller, eds., Leiden: Brill, 2000.

Ridderbos, H. 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7.

Sanders, E. P., *Jesus and Judaism*, London: SCM Press, 1985.

Schiffman, Lawrence H., "Community Without Temple: The Qumran Community's Withdrawal from the Jerusalem Temple," *Gemeinde Ohne Tempel/Community without Temple*, Beate Ego, Armin Lange, Kathrin Ehlers, and Peter Pilhofer, eds., Tübingen: Mohr Siebeck, 1999.

Schnackenburg, 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 Kent: Burns & Oates, 1982.

Swarup, Paul., *The Self-Understanding of the Dead Sea Scrolls Community: An Eternal Planting, a House of Holiness*,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6.

<초록>

## ‘아버지의 집’(요14:2-3)의 3가지 해석 가능성에 관한 연구

권해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요한복음 14:2-3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전통적으로 신자들이 예수의 재림 시에 가는 ‘하늘 성전’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예수는 종말에 다시 와서 그의 제자들을 하늘 성전으로 이끌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 있다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동체 성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은 예수의 재림이 아니라, 부활과 성령으로 곧 다시 오시는 예수의 임재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주 장소로서의 아버지 가족이 된다고 한다. 또 다른 주장은 이미 성전 칭결 사건을 통해 예수가 ‘아버지의 집’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2:16, 19-21), 이 부분에서 예수의 아버지 집으로서의 성전 됨이 강화된다고 한다. 이런 3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해석이 가장 적합한 것일까? 기존의 용어 조사나 유대 배경 연구는 이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맥 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고별 강화(13:31-16:33)는 예수의 떠남과 다시 오심이 주 골격을 이루고 있다. 예수가 먼저 제자들에게 곧 떠날 것임을 나타내자, 제자들은 당황해 하며, 그 진의를 묻는다. 이에 예수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자신은 지금 떠나지만, 곧 부활과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설명한다.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계속해서 이해시키는 모습이 반복해서 고별 강화에 등장한다. 14:2-3은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14:2-3은 부활과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셔서, 임재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14:3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은 14장에서 세 번 더 반복되는데(요 14:18, 23, 28), 이 용례들도 예수의 임박한 오심을 의미하여, 14:2-3이 예수가 부활과 성령으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뜻한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별 강화의 문맥을 넘어,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14:2-3은 2:13-21의 성전 청결 사건과 유비를 이룬다. 2장에서 예수의 부활한 몸이 성전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14:2-3의 예수의 죽음 이후 세워진 성전으로서의 거처(τόπος)는 예수의 부활한 몸이 된다. 예수는 부활한 몸으로서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거처를 마련하신) 후, 다시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게 된다. 이와 같이 14:2-3의 모든 문맥들은 예수의 재림보다는, 그의 임박한 임재와, 성령으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하늘 성전보다는, 문맥의 지지를 받는 예수 성전이나 공동체 성전이 14:2-3에 나오는 성전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 A Study of the Three Interpretational Possibilities of ‘the Father’s House’ in John 14:2-3

Prof. Hae Saeng Kwon  
(Kukje Theological Seminary)

Traditionally the Father’s House in John 14:2-3 has been understood as the heavenly temple where the believers are destined to go after death. It is believed in this verse that Jesus will come back to the world and take his people to the heavenly temple at eschaton. However, a few recent scholars raise objections against this traditional interpretation. They say that the Father’s House

in this verse does not refer to the heavenly temple, but the community-temple, because it can be rendered into 'the Father's household' where Jesus will dwell in the Spirit. Also it can be Jesus-temple which is established through resurrection, because Jesus' resurrected body is described as the Father's House in John 2:16, 19-21. Among these three kinds of the temple, which is the most adequate interpretation of 'the Father's House' in John 14:2-3? Neither terminological approaches nor background studies are sufficient to resolve interpretational problems. So the analysis of the context of the passages can be a key to interpret the Father's House.

First, the Farewell Discourse(13:31-16:33) mainly consists of the references to Jesus' leaving and coming. Jesus initial saying of his leaving makes his disciples embarrassed, and they ask him his real intention. By setting the disciples at ease who feel uneasy, he says that he will come back through resurrection and the Spirit although leaving now. Nonetheless they continue to be anxious about his leaving, then he repeats to comfort them and attempt to make them understand the meanings of his leaving and coming. John 14:2-3 is positioned within this context. Accordingly, 14:2-3 puts focus on the picture of Jesus who will come through resurrection and the Spirit, and dwell among them. Secondly, all references to Jesus' coming in John 14 indicate his imminent coming, and this fact supports that John 14:2-3 signifies Jesus' coming through resurrection and the Spirit. Lastly,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Fourth Gospel, 14:2-3 is parallel to the temple cleansing in 2:13-21. Just as Jesus' resurrected body is presented as the temple in the temple cleansing, so the place(to,po) Jesus will prepare after death is regarded as his resurrected body as well. The resurrected Lord comes back and dwells among his people in the Spirit. The whole contexts of John 14:2-3 uphold Jesus' imminent coming to and dwelling among his people in the Spirit.

For these reasons, rather than the heavenly temple, either Jesus-temple or the community-temple is more possible candidate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Father's House in John 14:2-3.

